

# 『尋院錄』을 통해 본 18세기 전반 陶山書院의 방문과 그 의미\*

김명자\*\*

## 차 례

- I. 머리말
- II. 방문인원과 목적
- III. 방문객의 거주지와 성씨
- IV. 지방관 및 관직 역임자의 방문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1720년 12월 20일부터 1745년 1월 21일까지 도산서원 『尋院錄』에 기재된 4,935명을 대상으로 방문인원과 목적, 방문객의 거주지와 성씨, 지방관의 방문 현황 등을 분석했다.

『심원록』에는 한해 평균 200여 명이 방문사실을 기재했다. 1728년(352명)과 1733년(639명)에는 방문객이 이례적으로 많은데, 이는 영남안집어사 朴文秀의 도산서원 방문과 퇴계 이황의 致祭에 따른 것이다. 방문객의 대부분은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흠모하여 방문했으며, 과거에 급제했을 때, 도산서원 근처에 오고 갈 때, 享祀·居齋·출판·玩樂齋의 관리 등의 이유로 방문하기도 했다.

방문객의 거주지와 성씨를 살펴보면, 236개 성씨가 8개 道 63개 지역에서 도

\* 본 연구는 2012년도 (재)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 심층연구 사업의 자료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산서원을 방문했다. 그 가운데 안동 권씨, 진성 이씨, 의성 김씨, 전주 이씨, 광산 김씨, 영천 이씨, 봉화 금씨, 청주 정씨, 전주 류씨 등의 순으로 방문이 이어졌으며, 지역별로는 예안·안동·영주·순흥·영해·봉화·예천·영양 순이다.

지방관의 경우, 경상감사 22명 가운데 11명이 방문했으며, 예안현감 9명은 부임한 그달에 모두 도산서원을 참배했다. 안동을 비롯한 인근 고을 수령의 방문도 잦았는데, 지방관의 당색과 무관하게 이황에 대한 존경과 학문적 계승 입장을 나타냈다. 물론 중앙정치에서 영남 남인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와 더불어 도산서원이 영남 남인의 정치적 중심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 주제어

도산서원, 『尋院錄』, 서원 방문, 영남 남인, 예안

## I. 머리말

도산서원은 조선을 대표하는 으뜸서원[首院]으로, 영남 남인의 거점이자 향촌 사족의 활동 공간이었다. 따라서 어디 사는 누가, 왜, 얼마나 자주 도산서원을 방문했는지 분석하면, 퇴계학맥의 정신적 중심이며 남인의 정치적 중심인 도산서원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尋院錄』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것은 서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남긴 일종의 방명록인데, 도산서원은 설립 이후 『심원록』을 마련했다. 도산서원을 방문한 손님은 院奴가 가져다주는 『심원록』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적었다.<sup>1)</sup> 방명록 작성은 방문객과 서원의 상호관계를 확인하는 사회적 의식이었다. 여기에는 거주지, 본관, 성명, 字, 生年

1) “院奴復進尋院錄，余等列書姓名及字鄉貫日月，亦例也。”(『星湖全集』 卷53, 記, 「謁陶山書院記」)

干支, 방문날짜, 방문목적 등 풍부한 정보가 담겨있다.

도산서원은 2003년에 고전적과 목판 등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했다. 『심원록』도 여기에 포함되었는데, 모두 68책 가운데 41책이 한국국학진흥원의 인터넷 사이트 “유교넷”을 통해 공개되었다. 시기별로는 17세기 1책, 18세기 17책, 19세기 18책, 20세기 1책, 미상 4책이다. 크기는 제각각인데, 대체로 세로는 25~42.5cm이고, 가로는 20~32.5cm이다. 분량은 1책 당 54~187면이다. 한 해만 기록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 4~5년 치를 기록했다.

도산서원의 모든 『심원록』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면 시기별 도산서원의 위상과 성격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sup>2)</sup> 그러나 분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룰 수 없다. 이 글에서는 1720년(숙종 46)부터 1745년(영조 21)까지 작성된 『심원록』을 통해 방문인원과 목적, 방문객의 거주지와 성씨, 지방관 및 관직 역임자의 방문 등을 살펴보겠다. 이 기간의 『심원록』은 빠짐없이 공개되어 있어, 방문객의 현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또한 자료의 대부분이 영조 집권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조 대 집권세력의 영남에 대한 정책이 도산서원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남인은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했으며, 그 중심에 있던 성씨와 지역은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2) 『심원록』에 대한 연구는 「충현서원 『심원록(尋院錄)』 분석」(서홍석, 『考古와 民俗』 13, 2010)이 있으며, 충현서원 건립과 사액과정 및 『심원록』을 통한 연도별 방문 인원, 지방관의 서원방문 현황, 방문자의 거주지와 본관, 방문자의 문인관계 등이 밝혀졌다. 필자의 이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 II. 방문인원과 목적

### 1. 방문인원

예나 지금이나 특정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면 방문록에 성명을 기재한다. 물론 반드시 기록하는 것은 아니며, 도산서원 『심원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심원록』을 통해 정확한 방문 인원을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방문 사실의 기록은 방문객의 의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도산서원 방문의 여러 가지 모습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우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산서원을 심방했을까? <표 1>은 1720년 12월 20일부터 1745년 1월 21일까지 연도별 도산서원 방문 인원이다.

<표 1> 1720~1745년 연도별 도산서원 방문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1720	14	1727	216	1734	196	1741	179
1721	219	1728	352	1735	153	1742	153
1722	181	1729	178	1736	134	1743	137
1723	198	1730	164	1737	128	1744	212
1724	212	1731	240	1738	152	1745	13
1725	120	1732	218	1739	177	합계	4,935
1726	121	1733	639	1740	229		

1720년과 1745년을 제외하면 1년 평균 방문객은 204명으로 다른 서원보다 훨씬 더 많다.<sup>3)</sup> 방문객이 특히 많은 해는 1728년(352명)과 1733년(639명)이다. 1728년에는 2월 8일~2월 15일 사이에 방문객이 많은데, 2월 8일 26명, 2월 9일 28명, 2월 11일 152명이 기재되어 있다. 1733년에는 12월 17일 단 하루에 기재된 인원이 454명으로, 이는 통상적으로 1년 동안 『심원록』에 기재된 방문객의 두 배가 넘는다.

1728년과 1733년에 방문객이 이례적으로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도산서원이 영남을 대표하는 공간임을 시사한다. 갑술환국으로 남인 정권이 몰락하자 영남 남인의 중앙 진출도 좌절되었으며, 이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었다.

영조 집권기 노론과 소론은 각각 영남 남인의 調用論을 내세웠다. 한편 노론은 남인계의 노론화 혹은 남인 세력의 분열과 몰락을 피하기도 했다. 반면 소론은 영남 사족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특히 영조 초반 노론에 비해 정치적으로 열세에 있던 소론계열 혹은 탕평파는 영남지역의 사족을 협조 세력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sup>4)</sup>

1727년(영조 3) 영남안집어사에 차출된 박문수는 다음해 1월 15일부터 2월 7일까지 안동에 머물렀으며,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예안·봉화·영천[榮川, 영주]<sup>5)</sup>·순흥 등을 순행했다.<sup>6)</sup> 박문수는 안동에서 屏谷

3) 가령 충현서원은 1624년 사액서원이 되었는데, 1611년부터 1660년까지 『심원록』에 858명이 기재되어, 한해 평균 17~18명이 방문했다(서홍석, 앞의 논문, 69~70쪽).

4)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566~567쪽. ;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219쪽. ; 李根浩, 「英祖代 戊申亂 이후 慶尙監司의 收拾策」, 『영남학』17, 2010, 154쪽.

5) 조선시대 榮川은 오늘날 榮州를 일컬으며, 永川과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영주로 표기하겠다.

6) 『승정원일기』 680, 영조 5년 3월 6일 경술(이하 <http://sjw.history.go.kr> 참고)

權榘(1672~1749), 密菴 李栽(1657~1730) 등을 만났다. 권구는 葛庵 李玄逸(1627~1704)의 문인으로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전념했으며,<sup>7)</sup> 이재는 이현일의 아들이다. 이 두 사람은 안동의 명유로, 영남 사족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다. 박문수가 2월 11에는 도산서원을 방문했는데, 당시 경산·경주·군위·영해·대구·용궁·봉화·상주·순흥·안동·영양·영주·영천·예천·용궁·의성·의흥·인동·진보·칠곡·풍기·홍해 등 경상좌도에서 152명이 모였다. 박문수의 영남 지역 순행에서 도산서원이 갖는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1733년(영조 9) 12월 17일 영조는 홍문관 부수찬 鄭亨復을 보내어 퇴계 이황을 致祭했다. 『심원록』에는 정형복은 치제관으로, 宋堯輔는 致祭差備官으로, 任(火+集)은 致祭大祝官으로 기재되어 있다. 김한철은 1733년 10월 27일 태백산사고에 曝曬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산서원 상덕사에 참배했으며, 중앙에 올라가 영조에게 이황의 치제를 언급했다.

신이 史冊을 曝曬하라는 명을 받들고 영남에 갔는데, 先正臣 文純公 이황이 남긴 교화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兒童·走卒들도 모두 老先生이라고 칭하고, 隻字片言이라도 사람들이 모두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文成公 李珣에게는 치제했는데, 유독 문순공에게는 미치지 않았으므로 영남 사람들이 자못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sup>8)</sup>

당시 조정에서는 영남의 사족을 위무하는 방법으로 인제 등용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으며, 치제 역시 그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이다.<sup>9)</sup>

7) 『屏谷集』, 卷9, 附錄, 「行狀」.

8) 『영조실록』 36, 9년 11월 19일 병신(이하 <http://sillok.history.go.kr> 참고)

9) “殿下欲以爵祿，慰嶺南之士，魯多君子，何嘗悅以爵祿乎。夫朝廷之全不收錄固非矣。然上

물론 김한철이 영조에게 치제를 언급한 데는 도산서원 원장 淸臺 權相一(1679~1759)이 일정 정도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는 1710년(숙종 36) 문과급제 이후 승문원부정자를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1733년 양산군수·군자감정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도산서원 원장이 되어 향촌 활동에 주력했다. 다음 해 울산부사를 역임한 이후 권상일은 더 이상 한양에 올라가지 않고 향촌에 머물렀으며, 1742년에도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했다.

조정에서는 오랫동안 향촌에 머물던 권상일에게 다시 관직을 주었다. 그는 1745년(영조 21) 봉상시정을 비롯하여 대사간·지중추부사·대사헌 등을 지냈는데,<sup>10)</sup> 18세기 영남 남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는 권상일이 노론정권하에 영남 출신으로 영조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앙의 실세들이 권상일을 영남 남인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심인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sup>11)</sup> 권상일은 포쇄사관 혹은 봉안사로 도산서원을 방문했던 중앙의 인사들과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김한철에게도 영남의 분위기를 전했다.

12월 17일 치제 당시 『심원록』에 기재된 인원은 454명이지만, 실제로는 더욱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권상일의 『淸臺日記』에는 상황이 촉박하여 경상좌도의 8~9개 고을에만 통문을 돌렸을 뿐인데도 800여 명이 모였다고 한다.<sup>12)</sup> 서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치적으로 소외되었

之待嶺士，當以禮義爲先，而朝廷之人亦開誠心通情志，樂與共事，則收人才振淹滯，自在其中矣。”(『영조실록』 36, 9년 12월 25일 임신)

10) 『淸臺集』, 卷2, 附錄, 「資憲大夫行司憲府大司憲淸臺權公行狀」

11) “台佐曰，嶺南，本是文獻之方，黨論以後，不能隨才調用，實有淹滯之歎，自今以後，自上擢用，則實爲聳動之方矣。上曰，大臣有聞知者否。光佐曰，趙德隣，林下讀朱書五十年，金(人+政)，權相一，申正模，皆以經學名，可用也。上曰，唯。”(『영조실록』 15, 4년 1월 30일 신사)

12) “……書送通文事甚急遽，故鄉中已會，出各邑通文而未及遠通，惟江左上道八九邑而已。”

으며, 특히 1728년(영조 4) 소론과 과격 남인에 의해 발생한 무신난 이후 영남지역 사족들은 정치적으로 더욱 위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조의 치제는 영남의 사족들에게는 정치적 복원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국왕의 치제라는 경사스러운 일과 정치적 위상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우러져 영남의 사족은 도산서원 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2. 방문목적

### (1) 사당 참배

도산서원 방문은 先賢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학문적 연대를 확인하는 사회적 의식이다. 종교인들의 성지 방문과 일맥상통한다. 방문객들은 ‘來謁’·‘祗謁’·‘敬謁’·‘來尋’ 등으로 방문목적을 기재하여, 이황의 사당에 배알하기 위해 서원을 방문했음을 밝혔다. 1738년(영조 14) 공주에 거주하는 진주인 姜聖齊는 “평생 양모했으나 오늘 저녁에야 비로소 배알한다”고 그 감회를 『심원록』에 표현했다. 이들은 이황을 흠모하고, 이황의 학문과 도학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도산서원을 방문한 것이다.

특별한 계기에 도산서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첫째, 과거에 합격한 후에 도산서원에 참배한 경우이다. 모두 70명인데, 주로 안동·충주·상주·용궁·영해·선산·영주·칠곡·순흥 등지에서 왔다. 과거에 합격하면, 친척과 친지를 찾아뵙고, 조상의 산소에 배알하고, 몇몇 서원을 방문하는

---

(『淸臺日記』(국사편찬위원회) 下, 癸丑(1733년) 十二月 十一日) : “……午時行祭, 祭文修撰吳瑗製進, 院長及長老十餘人入廟庭, 其餘士林在廟門外列立, 至外大門外, 而不能容矣, 會員八百餘人.”(『淸臺日記』(국사편찬위원회) 下, 癸丑(1733년) 十二月 十七日)

관행을 따른 것이다.

그 가운데 陽川 許氏가 특히 주목된다. 충주에 거주하는 許鍾는 1735년(영조 11) 윤4월 13일 실시한 증광시에 급제한 후 6월 19일 도산서원을 방문했고, 허추의 조카 許檐 역시 1738년 생원시에 2등으로 합격하고, 5월 21일 도산서원을 방문했다. 양친 허씨는 대대로 중앙의 관직을 역임한 명문으로, 일찍부터 퇴계학맥에 속하는 인사들과 교유가 있었다. 이런 계기로 그들은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하여 먼 길을 마다않고 퇴계의 사당에 참배하고 과거 합격 사실을 알리는 관행을 만들어 나갔다.

둘째, 여행 혹은 공무 수행 중에 도산서원 근처를 지나가다 방문하는 경우이다. 당시에 먼 곳 거주자가 일부러 도산서원을 방문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1734년 영해에 거주하는 權達行은 京試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도산서원에 들러 숙박했고, 1742년(영조 18) 평해인 尹得復은 청량산 가는 길에 도산서원을 방문했다.

관리들은 공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참배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1722년 3월 23일 李滄과 趙趾彬은 포쇄 史官으로, 1725년 10월 洪錫輔는 봉안사로 봉화의 太白山史庫에 왔다가 사당에 알묘했다. 1727년 윤3월 10일 礪城君 李楫은 宗簿寺 提調로, 鄭匡濟는 宗簿正이 되어 태백산사고에 璿源錄을 봉안하러 왔다가 도산서원에 참배했다. 세자시강원에서는 정광제를 書筵에 入番시키기 위해 임금에게 청하여 빨리 올라오도록 하였다.<sup>13)</sup> 정광제는 일정이 빠듯하였지만, 봉화 근처에 있는 도산서원 방문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13) “又以侍講院言啓曰, 本院輔德韓頤朝入直矣, 今日政加資出去, 上番將未免闕直. 新除授文學李挺樸, 卽爲牌招入直, 弼善鄭匡濟, 以璿源錄奉安事, 時在慶尙道奉化, 江原道江陵等地, 書筵入番事緊, 斯速乘駟上來事, 下諭, 何如? 傳曰, 允.”(『승정원일기』 634, 영조 3년 3월 27일 갑인)

1729년 10월 27일, 蔡彭胤(1669~1731)의 방문은 아주 특별했다. 그는 숙종 때부터 시와 글씨로 이름을 날렸고, 정언으로 있을 때 홍문록에 선발되었다. 그러나 이이와 성혼의 문묘출향을 주장하여 벼슬을 그만두었다가, 영조 즉위 후 발탁되어 승지와 예조참의 등 요직을 맡았다. 그는 『숙종실록』을 봉안하는 일로 봉화에 왔다가, 도산서원을 방문했다. 그의 명성을 잘 아는 여러 사람이 간청하자, 채팽윤은 『심원록』에 시 한수를 남겼다.<sup>14)</sup>

우주에 태어난 것이 어찌 그리 늦었는가	宇宙生何晚
계산(溪山)을 그리는 생각은 끝이 없도다	溪山思不窮
공손히 궤리택을 방문하고	恭尋闕里宅
홀로 무우(舞雩)를 거닐면서 바람을 쐬네	獨溯舞雩風
빼어난 빛은 부용봉이 솟았기 때문이고	秀色芙蓉出
차가운 물은 옥여처럼 텅 비었네	寒流玉鏡空
갈 길이 아득해서 천고의 한이 되는데	迷途千古恨
석양 가운데 머물러 있네	駐節夕陽中

도산서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대개 사당에 알현하고 그날 돌아갔지만, 751명은 하루 이상 머물렀다. 가령, 여흥인 閔鉦(?~1741)은 1739년 3월 15일에 와서 다음날 아침 상덕사에 알현하고, 이황의 묘소에 들렀다가 돌아갔다. 대야에 몸을 씻고 나서 알현한 기록도 있는데,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 후 사당에 참배한 것이다.

14) “自退溪先生舊宅, 轉謁陶山書院, 諸生請以韻語書于尋院錄, 辭以不敢, 請愈固, 黽勉敬草.”(『希菴集』卷20, 詩) 蔡彭胤은 정조 때 남인의 거두로 영의정을 지낸 樊巖 蔡濟恭(1720~1799)의 종조부이다.

## (2) 享祀·居齋·출판·玩樂齋의 보존

『심원록』을 통해 서원 享祀·居齋·출판·玩樂齋의 보존 등 서원 운영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서원 운영에 관여하거나 서원 방문이 잦은 경우에는 『심원록』에 방문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들이 『심원록』에 방문 사실과 목적을 기재한 것은 자신의 방문을 의식적인 행위로 자각했기 때문이다.

먼저, 춘추향사에 참석하러 온 경우는 41건이고, 正調 혹은 삭망 알례에 참석하러 왔다고 표기한 경우는 3건이다. 이 가운데 동일 인물이 반복되는 경우는 없다. 入齋도 9회 기재되어 있는데, 1735년 4회, 1740년 1회, 1741년 1회, 1742년 2회, 1744년 1회이다. 1741년 11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2월과 8월이어서 춘추향사 준비를 위해 입재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거재라고 기재한 사례이다. 거재는 서원에 일정기간 기거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일컬으며, 도산서원의 강학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심원록』에 기록된 거재 인원과 지역은 <표 2>과 같다.

&lt;표 2&gt; 1720~1745년 도산서원 거재 인원과 지역

연도	인원	거재 일자별 인원(지역, 인원)
1727	7	10월 26일 1명(안동 1), 11월 10일 1명, 11월 12일 2명(상주 1, 안동 1), 12월 1일 1명, 12월 2일 1명, 12월 3일 1명
1729	2	7월 19일 1명, 11월 11일 1명
1730	10	11월 14일 2명, 11월 15일 1명, 11월 16일 3명(안동 2), 11월 20일 1명(안동 1), 22일 1명, 23일 2명(함창 2)
1741	3	3월 28일 1명(영해 1), 11월 23일 1명(안동 1), 12월 6일 1명

1727·1729·1730·1741년 14회에 걸쳐 22명이 거제 사실을 기록했다. 날짜별 기록 인원은 1~3명이며, 이들의 거주지는 안동·상주·영해·함창·풍기 등으로 경상좌도를 지역적 범위로 하고 있다. 기재된 인원으로 미루어 거제에 참여했던 모든 인원이 『심원록』에 기재하지는 않은 것 같다. 조선후기에 서원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으며, 문중 서원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원의 강화 기능이 약화되었고, 대부분의 서원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한 달 혹은 보름동안의 거제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었다.<sup>15)</sup> 비록 단편적인 사례이지만, 당시에 도산서원에서는 거제가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산서원은 출판 및 도서관의 기능도 담당했으며, 『심원록』을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726년 4~5월과 1728년 11월에 도산서원에서 문집의 간역이 이루어졌다. 누구의 문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4월 14일에는 안동에 거주하는 權萬과 權蘇가, 4월 29일에는 柳鼎和가, 5월 2일에는 의성에 거주하는 李天祺가, 다음날에는 안동의 權正宅이 문집 간역하는 일을 살피고 돌아갔다. 1728년 11월 19일 무안인 朴昌大도 문집을 교정하러 왔으며, 11월 25일에는 14명이 문집을 교정하기 위해 도산서원에 모였다.

1733년 3월에는 ‘言行錄校正’이 있었다. ‘언행록’은 『퇴계선생언행록』을 가리키며, 1732년 경상감사 趙顯命의 도움으로 간행된 적이 있다. 이것을 ‘화산본’이라고 하는데, 출간 이후 안동과 예안의 사족사회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sup>16)</sup> 그래서 ‘화산본’을 대폭 수정하여 다시 간행할 당시 언행록 교정에 참여한 49명이 『심원록』에 방문사실을 기재했다.

15)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349~360쪽.

16) 정만조,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69쪽.

다른 서원의 문집을 인출하기 위해 도산서원에 오기도 했는데, 이는 도산서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 1737년 윤9월 25일 權得重은 立巖書院<sup>17)</sup>의 문집을 인출하기 위해 도산서원을 방문하여 사당에 알현했다. 1739년 2월 20일 영주에 거주하는 영친인 李慶泰는 향례에 참석했다가 迂溪書院<sup>18)</sup> 문집을 인출하고 돌아갔는데, 다음날 李運泰도 문집을 인출하러 왔다가 유숙하고 그 다음날 아침 사당에 알묘했다.

방문객들은 완락재를 살펴보고, 이를 『심원록』에 기재하기도 했다. 완락재는 이황이 생전에 사용하던 공간이며, 그의 유품을 보존하고 있었다. 후학들은 이황의 유품과 글씨는 모두 진기한 보배로 여겼기 때문에 거처와 용구를 정성껏 보존했고, 방문객들은 이를 뜻깊게 관람했다. 1727년 윤3월 21일 안동에 거주하는 權正容은 사당에 알현한 이후 완락재에 소장되어 있는 물건들을 살펴보고, 26일에는 경주인 孫雲燻이 완락재의 소장품을 살폈다.

星湖 李瀾(1681~1763)은 완락재에서 본 바를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실 안을 구경해 보니 서쪽과 북쪽 두 벽에 모두 장이 있는데, 각각 2층으로 된 장에는 모두 遺物이 보관되어 있었다. 璿璣玉衡이라는 器具 하나, 책상, 등잔대, 投壺 각각 하나, 花盆臺, 唾具 각각 하나, 벼룻집 하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벼루는 어떤 자에게 도둑맞아서 지금은 없다고 한다. 무릇 벼루는 한 조각 돌덩어리일 뿐이나, 이곳에 있으면 값을 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다만 다른 돌덩이와 같은 것일 뿐인데, 저 흠쳐간 자는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던가. 아, 유감스럽다. 또 靑

17) 立巖書院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에 위치하며, 1657년(효종 8) 지방유림의 공의로 旅軒 張顯光(1554~1637)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했다.

18) 迂溪書院은 영주시 평은면 천본리에 있으며, 1665년(현종 6) 良齋 李德弘(1541~1596)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했다.

藜杖 한 자루는 匣을 만들어 간직해 놓았는데 조금의 파손도 없고 품질도 보기 드문 것이었다. 1치마다 마디가 두서너 개 있어 鶴의 무릎 같았고, 두드리면 쟁쟁 울리면서 맑은 소리가 나서 보배로 여길 만했다.<sup>19)</sup>

도산서원을 방문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당에 알현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1728년 안동의 완산인 李富春은 병으로 사당에 참배하지 못했으며, 1733년 6월 1일 방문한 姜一臣, 11월 2일 영양에서 온 鄭德一, 11월 28일 서원을 방문한 李龍錫은 꺼리는 일이 있어 사당에 알현하지 못했다. 1741년 11월 3일 방문한 안동의 진성인 李孝昌 역시 아파서 서원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침저녁 울무만 마시다가 그냥 돌아갔다.

### Ⅲ. 방문객의 거주지와 성씨

방문객 가운데 거주지를 표기한 사람은 1,362명이다. 도산서원을 여러 번 방문한 사람은 거주지를 표기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 568명은 거주지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거주지가 분명하다. 이들을 포함하면, 모두 1,930명의 거주지를 알 수 있다. 전체 방문객 4,935명의 39.1%에 해당한다. 나머지 61%는 거주지를 알 수 없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예안 지역 인사들로 추정된다. 현재로서는 거주지가 확인된 방문객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의 거주지를 도별로 구분하면 <표 3>과 같다.

19) 『星湖全集』 卷53, 記, 『謁陶山書院記』(<http://db.itkc.or.kr> 참조)

&lt;표 3&gt; 1720년~1745년 도산서원 방문객의 거주 지역

도명	지역명
경상도	慶州, 高靈, 軍威, 金山, 大丘, 聞慶, 奉化, 尙州, 星州, 順興, 安東, 盈德, 英陽, 榮川[영주], 永川, 禮安, 醴泉, 義城, 義興, 寧海, 龍宮, 蔚珍, 眞寶, 青松, 漆谷, 仁同, 善山, 豊基, 興海, 玄風, 居昌, 慶山, 河陽, 東萊, 蔚山, 昌寧
충청도	公州, 槐山, 林川, 懷德, 報恩, 牙山, 恩津, 陰竹, 堤川, 淸州, 忠州, 鎭峇
한양/경기도	漢陽, 廣州, 呂州, 楊平, 竹山
강원도	洪城, 三陟, 原州
전라도	光州, 全州, 咸平, 瀛洲[제주도]
함경도	吉州
평안도	肅寧
황해도	海州

도산서원 방문객의 거주지는 한양 및 8개 도 63개 지역에 분포되었다. 경상도는 36개 지역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이어서 충청도 12개 지역, 경기도·전라도 4개 지역, 강원도 3개 지역, 한양·황해도·평안도·함경도는 각각 1개 지역이다. 이로써 전국에서 도산서원을 방문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각 지역에서는 몇 명이 방문했을까. 여기서는 63개 지역 가운데 2회 이상 기록된 40개 지역을 검토 대상으로 하고, 1회만 기록된 23개 지역은 제외한다.

&lt;표 4&gt; 1720년~1745년 2회 이상 도산서원 방문객의 거주 지역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지역	인원
安東	789	尙州	49	漆谷	14	昌寧	7	金山	3	原州	2
榮川	323	豐基	40	慶州	14	仁同	7	驪州	3	牙山	2
順興	129	漢陽	35	大丘	12	軍威	7	玄風	2	槐山	2
寧海	84	義城	27	堤川	11	聞慶	7	河陽	2	公州	2
奉化	73	龍宮	27	禮安	11	蔚珍	6	淸州	2	海州	2
醴泉	70	眞寶	26	忠州	10	星州	5	全州	2		
英陽	67	善山	16	永川	9	青松	5	義興	2		

안동은 789명이 방문하여 가장 많고, 다음은 영주 323명, 순흥 129 명 순이다. 세 지역의 방문인원이 1,241명으로, 거주지가 확인된 방문객의 64.3%를 차지한다. 예안 거주자로 기록한 방문객은 11명뿐이다. 예안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을 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예안을 포함한 4개 지역이 분석 대상 지역 방문객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영해(84)·봉화(73)·예천(70)·영양(67)·상주(49)·풍기·(40)·한양(35) 순이다.

영해가 네 번째로 방문객이 많은데, 이는 ‘갈암문인’의 결집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葛庵 李玄逸(1627~1704)은 영해 출신으로 퇴계의 학통을 계승한 대표적인 산림으로 꼽힌다. 그는 숙종초반 학행으로 천거되었으며,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 정권이 수립되자 영남 남인과 퇴계학파의 정치적·학문적 입지 확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몰락함과 동시에 이현일도 유배되었다.

18세기 전반 ‘갈암문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현일의 伸冤 운동을 전개하였다.<sup>20)</sup> 이는 영남 남인의 위상 회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갈암문인’은 안동을 거점으로 봉화·영해·영양 등 경상좌도 북부지역에 주로

거주하였는데, 이 지역의 도산서원 방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영해 지역은 재령 이씨, 광산 김씨, 함안 박씨, 영양 남씨, 안동 권씨 등이 도산서원을 자주 방문했으며, 이들은 이현일의 신원을 위한 영남 남인의 결집에도 앞장섰다.

한편 방문객의 성씨는 모두 236개가 나온다. 이 가운데 상위 30개 성씨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표 5>와 같다.

<표 5> 1720년~1745년 성씨별 방문 인원

성씨	인원	성씨	인원	성씨	인원	성씨	인원	성씨	인원
安東 權	438	永川 李	145	英陽 南	82	仁同 張	63	豊山 柳	52
眞城 李	292	淸州 鄭	142	潘南 朴	75	晉州 姜	63	固城 李	51
義城 金	194	全州 柳	136	昌寧 成	71	豊山 金	64	咸陽 朴	51
全州 李	175	禮安 金	130	南陽 洪	67	竹溪 安	59	平山 申	48
奉化 琴	158	安東 金	100	昌原 黃	66	務安 朴	56	羽溪 李	43
光山 金	148	漢陽 趙	97	載寧 李	64	冶城 宋	56	慶州 李	41

20) 『霧山年譜』; 『密菴集』 卷24, 附錄, 「年譜」; 『淸臺日記(上)』(국사편찬위원회), 337쪽, 341쪽.

우선 안동 권씨가 438명으로 가장 많다. 안동지역의 인구분포에서 안동 권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sup>21)</sup> 그 다음 진성 이씨, 의성 김씨, 전주 이씨, 광산 김씨, 영천 이씨, 봉화 금씨, 청주 정씨, 전주 류씨, 예안 김씨, 안동 김씨, 한양 조씨 순이다.

18세기 예안에는 진성 이씨, 광산 김씨, 영천 이씨, 봉화 금씨, 예안 김씨 등이 향촌사회를 주도했고, 안동의 虎溪書院<sup>22)</sup>을 중심으로 한 ‘鶴峰系’는 임하현의 의성 김씨, 전주 류씨 등이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안동의 屏山書院<sup>23)</sup>을 중심으로 한 ‘西厓系’는 풍산현의 풍산 류씨, 풍산 김씨 등이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도산서원에 자주 출입했지만, 예안에 거주하는 성씨들의 서원 출입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학봉계’이며, ‘서애계’는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심원록』에 기재된 4,935명 가운데 동일 인물이 도산서원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복 방문을 제외하면 3,564명이 도산서원을 방문하였다. 이들을 방문횟수로 분류하면 <표 6>과 같다.

21) 필자는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研究』(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에서 16~19세기 하회 풍산 류씨의 혼반을 살폈는데, 역시 안동 권씨와의 혼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22) 호계서원은 1573년(선조 6) 지방유림의 공의로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안동 월곡 도곡동에 건립되었으며, 1620년 鶴峰 金誠一과 西厓 柳成龍을 배향했다.

23) 병산서원은 안동 풍천 병산리에 위치한다. 서애 류성룡을 모셨으며, 1663년(현종 4) 修巖 柳紘을 배향했다.

&lt;표 6&gt; 1720~1745년 도산서원 방문객의 방문횟수

방문횟수	인원	방문횟수	인원	방문횟수	인원	방문횟수	인원	방문횟수	인원
1	2770	4	60	7	4	10	1	15	1
2	500	5	26	8	5	12	3	17	1
3	157	6	17	9	2	14	2	미상	12

1회 방문객은 2,770명을 차지하여 절반을 넘는다. 2회 방문객은 500명이고, 5회 이상 방문한 인원은 65명이다. 1회 방문하거나 원거리에서 방문하는 경우는 이황에 대한 경모심에서 비롯된 순수한 방문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반면 도산서원을 여러 번 방문한 경우는 도산서원의 운영 및 향촌 활동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5회 이상 방문한 인물을 중심으로 거주지역과 성씨를 살펴보겠다.<sup>24)</sup>

&lt;표 7&gt; 1720년~1745년 5회 이상 도산서원 방문객

순번	방문횟수	본관	성명	거주지	순번	방문횟수	본관	성명	거주지
1	17	永川	李運泰	榮川	34	6	慶州	李興培	榮川
2	15	永川	李慶泰	榮川	35	6	淸州	鄭玉	醴泉
3	14	光山	金鐸	寧海	36	6	淸州	鄭泰鼎	
4	14	咸陽	呂善兼		37	5	安東	權正始	安東
5	12	安東	權萬	安東	38	5	安東	權薊	安東
6	12	咸陽	呂命周		39	5	安東	金景必	安東
7	10	醴泉	權恒	安東	40	5	安東	金命達	
8	9	晉州	姜元一	奉化	41	5	奉化	琴正國	

24) 거주지는 『심원록』에 의거했으며, \*가 표기된 것은 한국국학진흥원 김형수 책임 연구위원의 도움을 받았다.

9	9	安東	權正容	安東	42	5	宣城	金堉	榮川*
10	8	義城	金景濂	安東	43	5	英陽	南大鳴	榮川
11	7	江陵	金應龜	安東	44	5	潘南	朴弘僑	榮川
12	8	安東	金希逸		45	5	潘南	朴滉	奉化
13	8	咸陽	朴聖輯	寧海	46	5	夏山	成偉寅	榮川
14	8	務安	朴昌大	順興	47	5	夏山	成澈	榮川
15	7	義城	金景溫	奉化	48	5	夏山	成憲寅	榮川
16	7	眞城	李頤	安東	49	5	夏山	成協寅	榮川
17	7	眞城	李顥		50	5	恩津	宋明欽	聞慶
18	7	淸州	鄭泰逸		51	5	冶城	宋儒式	榮川
19	6	安東	權定宅	安東	52	5	禮安	李揀	
20	6	奉化	琴昇	奉化	53	5	載寧	李奎煥	寧海
21	6	高靈	朴台雨	榮川	54	5	眞城	李克馯	安東
22	6	原州	邊尙綏	安東	55	5	永川	李萬春	榮川
23	6	原州	邊在愼	安東	56	5	固城	李時沆	安東
24	6	夏山	成喜寅	榮川	57	5	羽溪	李始顯	
25	6	冶城	宋權	榮川	58	5	全州	李仁栽	安東
26	6	眞城	李東馯	安東	59	5	眞城	李廷薰	安東
27	6	眞城	李敏樹	榮川	60	5	眞城	李孝甲	榮川
28	6	載寧	李鳳煥	安東	61	5	眞城	李孝觀	安東
29	6	永川	李世泰	榮川	62	5	眞城	李孝純	安東
30	6	眞城	李守仁		63	5	全州	李策	
31	6	眞城	李守恒	禮安*	64	5	淸州	鄭宜標	安東
32	6	永川	李友松		65	5	淸州	鄭泰道	醴泉
33	6	全州	李彙	安東					

5회 이상 방문객의 거주지는 안동 22명, 영주 18명, 봉화·영해·예천 각각 3명, 문경·순흥 각각 1명이며, 미상은 13명인데, 대부분 예안으로 추정된다. 성씨별로는 진성 이씨 11명, 고령 성씨, 안동 권씨, 영천 이씨, 청주 정씨 각각 5명, 안동 김씨, 전주 이씨 각각 3명, 반남 박씨, 봉화 금씨, 의

성 김씨, 원주 변씨, 야성 송씨, 재령 이씨, 함양 여씨 각각 2명 등이다.

이들의 정치적으로 대부분 남인에 속하며, 특히 12회 방문한 權萬, 9회 방문한 權正容, 6회 방문한 權定宅 등은 權櫟의 후손으로 이현일의 문인이거나 이현일의 아들인 이재의 문하를 출입함으로써 이현일과의 학문적 연계성을 지속해 나갔다.<sup>25)</sup>

그러나 9회 방문한 봉화 법전의 姜元一(1680~1757)은 1738년 安禹石·申思國과 함께 안동에 淸陰 金尙憲을 배향하는 노론계 서원을 창건하는데 앞장섰다. 그는 안동 남인들의 공격을 받았지만,<sup>26)</sup> 영남 남인의 상징적인 공간인 도산서원의 방문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도산서원은 안동 사족사회의 갈등에서 한발 빗겨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733년 『퇴계선생언행록』 간행 사업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여러 달에 걸쳐 진행되었지만,<sup>27)</sup> 18세기 전반 도산서원에서 행해진 일련의 사업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도산서원의 운영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언행록 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다.<sup>28)</sup>

#### <표 8> 1733년 『퇴계선생언행록』 간행 시 교정 회원

25) 金鶴洙, 앞의 논문, 378쪽.

26) 金炯秀, 「1738년(영조 14년) 安東 鶴東서원의 치폐와 지방관의 역할 - 『法城日記』를 중심으로 -」, 『嶺南學』17, 2010, 189~193쪽.

27) “……向於言行錄, 與安東相爭時, 逐日會員常數三十員, 如是過累月……”(『淸臺日記』(국사편찬위원회) 下, 癸丑(1733년) 十二月 二十八日)

28) 지역에 ‘\*’가 표기된 것은 한국국학진흥원 김형수 책임연구위원의 도움을 받았으며, 본관과 지역에 ‘o’가 표기된 것은 ‘新巖瀑布會賞錄(甲辰四月二十五日)’을 참고하였다.

본관	성명	지역	본관	성명	지역	본관	성명	지역	본관	성명	지역
	金(沃+土)	榮川*		金元復		德山	尹齊說	禮安*	全州	李仁栽	安東
義城	金景溫	安東*	光山	金履元	禮安*	眞城	李渠	禮安	眞城	李廷蓋	安東
奉化	琴敬躋		奉化	琴坦			李明兼	安東	眞城	李集	禮安
光山	金岱	禮安	奉化	琴后烈	禮安*	眞城	李世觀	禮安*		李台珩	順興
光山	金道元	安東	壽城	羅萬齡	榮川	眞城	李世震	禮安*	慶州	李恒培	榮川
光山	金東望	禮安*	英陽	南大鳴	榮川	眞城	李世泰	禮安*	慶州	李興培	榮川
光山	金東迪	安東		南明燮		眞城	李守謙	禮安	眞城°	李微兼	禮安°
	金斗文		潘南	朴再郁	禮安	眞城	李守淵	禮安*	仁同	張直方	榮川
奉化	琴萬古	奉化	潘南	朴再熙		眞城	李守元	禮安*	仁同	張后相	榮川
奉化	琴思遠		曲江	裴行儉	安東	眞城	李守仁			許澂	
宣城	金若龍	順興	昌寧	成世珽	安東	眞城	李守恒	禮安°			
宣城	金若默	順興	昌寧	成弼寅	安東	眞城°	李義兼	禮安°			
光山	金繹	禮安°	寧海	申錄	青松*	眞城	李仁兼	禮安°			

안행록 교정 회원으로 기재된 인물은 모두 49명이다. 이 가운데 張后相(1731)·金岱(1731)·李守謙(1728·1735)·李守淵(1744) 등은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이수겸과 이수연은 퇴계의 후손이다. 거주지가 확인되는 40명 가운데, 예안 19명, 안동 10명, 영주 7명, 순흥 3명, 봉화 1명이다. 성씨는 42명이 확인되며, 진성 이씨 14명, 광산 김씨 6명, 봉화 금씨 5명, 경주 이씨, 반남 박씨, 인동 장씨, 창녕 성씨, 선성 김씨 각각 2명, 덕산 윤씨, 곡강 배씨, 영해 신씨, 수성 나씨, 영양 남씨, 의성 김씨, 전주 이씨 각각 1명이다. 진성이씨가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예안의 광산 김씨, 봉화 금씨 순이다.

이상을 통해 도산서원 방문객은 전국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산서원 운영은 예안과 안동을 중심으로 영주·순흥·영해·봉화·영양

의 사족이 중심이 되었으며, 성씨로는 진성 이씨를 비롯하여 예안의 광산 김씨, 봉화 금씨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가운데는 ‘갈암문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 상당수에 이른다.

#### IV. 지방관 및 관직 역임자의 방문

##### 1. 경상감사의 방문

감사는 왕권의 대행자로 도의 행정·사법·군사 등 통치에 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 조선중기 이후 향촌사회가 재지사족에 의해 주도되고 향촌사회의 여론도 사족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에 감사는 순행 때마다 사족의 교화와 교육에 힘을 쏟았다. 특히 영남은 갑술환국과 무신란 이후 민심이 더욱 동요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경상감사를 통해 영남 지역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감사의 도산서원 방문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lt;표 9&gt; 1720~1745년 경상감사의 도산서원 방문 여부

성명	재임 기간	방문 일자	성명	재임 기간	방문 일자
趙泰億	1720.11~1721.8	1721.3	趙顯命	1730.7~1732.10	1731.4.5
洪禹傳	1721.8~1722.4		金始炯	1732.10~1734.7	
俞命凝	1722.4~1722.10		金在魯	1734.7~1735.3	1734.10.5
李廷濟	1722.10~1723.8		閔應洙	1735.3~1737.4	1735.11.12
李世瑾	1723.8~1724.3	1723.9	俞拓基	1737.4~1738.7	
金東弼	1724.3~1724.9	1724.윤4.5	李箕鎭	1738.9~1739.	1738.10.2
權以鎭	1724.9~1725.6		趙明謙	1739.5~1739.12	
趙榮福	1725.6~1726.5		鄭益河	1739.11~1741.6	1740.8.20
俞拓基	1726.5~1727.7	1726.9.11	沈聖希	1741.6~1742.9	1741.9.10
黃璿	1727.7~1728.4		金尙星	1742.9~1744.5	1743.2
朴文秀	1728.4~1730.7	1728.2.9	金尙魯	1744.5~1745.5	1744.10.8

경상감사 22명 가운데 11명이 『심원록』에 방문 사실을 기재했다. 이 가운데 趙泰億·朴文秀·趙顯命 등은 소론계이다. 이들은 노론이 우세한 정치적 상황에서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조용론을 내세웠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영남의 인사와 교류하며 조정에 이들을 천거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sup>29)</sup>

영남은 본디 인재의 府庫로 일컬어졌으니, 國朝의 隆盛한 시대에 조정에 가득한 公卿이 대부분 영남 사람이었습니다. 근래에 인재의 배출이 진실로 옛만 같지 못하지만 국가에서 거두어 쓰는 것도 또한 매우 드물어서, 영남 사람으로 文科에 오른 자가 많은 경우 80여 명에 이르는데도 벼슬을 얻어 祿을 받는 자가 없습니다. 마땅히 先朝 때의 거두어 錄用하라는 명을

29) 『승정원일기』 754, 영조 9년 정월 13일 을미

본받아 속히 銓曹로 하여금 널리 찾아 물어서 才質에 따라 調用하게 하소서.<sup>30)</sup>

조태억은 경상감사를 역임할 당시 영남 인재의 등용을 경종에게 건의했으며, 무신란 때 거창에서 鄭希亮이 이끄는 반란군과 맞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감영 안에서 갑자기 죽었다. 이후 영조가 영남지역을 안정시키고자 박문수를 경상감사로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에서, “큰 변란을 겪은 뒤 어루만져 복종케 하고 安集시키는 것이 하루라도 급하게 되었다.”<sup>31)</sup>고 했다. 조현명도 민심을 수습하고 풍교를 바로잡기 위해 도내의 선비 양성을 위한 規制를 상소했고,<sup>32)</sup> 金聖鐸·成爾鴻·李萬敷 등의 영남 인재를 천거했으며,<sup>33)</sup> 도산서원의 『퇴계선생언행록』 간행을 지원하기도 했다.

兪拓基·閔應洙·李箕鎮·金在魯·金尙魯를 비롯한 노론계 감사도 도산서원을 방문했다. 김재로는 ‘평생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적었으며, 김상로는 ‘후학’이라고 표기했다. 민응수는 도산서원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예안의 李守淵, 안동의 金世烈, 비안의 權翹, 안음의 愼守彝, 金山의 曹世鵬 등을 천거했다.<sup>34)</sup>

## 2. 예안현감의 방문

도산서원은 사학 기관이지만 지역 사족의 강학과 향촌 활동의 중심 공간이었다. 예안현감은 향촌사회를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 사족과 긴

30) 『경종실록』 3, 1년 5월 11일 신미

31) 『승정원일기』 660, 영조 4년 4월 17일 정유(李根浩, 앞의 논문, 151쪽 참조)

32) 『영조실록』 31, 8년 윤 5월 29일 갑인

33) 『영조실록』 33, 9년 1월 13일 을미

34) 『영조실록』 43, 13년 3월 3일 신묘

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서원에도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표 10>은 1720~1744년 예안현감의 도산서원 방문횟수이다.

<표 10> 1720~1744년 예안현감의 도산서원 방문 횟수

순번	성명	재임 기간	첫 회 방문 일자	방문횟수
1	朴聖輯	1721년 2월~1724년 12월	1721년 2월 15일	8
2	李德淳	1725년 1월 ~1725년 4월	1725년 1월 11일	2
3	沈宗賢	1725년 7월~1726년 9월	1725년 7월 24일	1
4	呂命周	1726년 10월~1728년 3월	1726년 10월 30일	12
5	韓德弼	1728년 4월~1730년 7월	1728년 5월 6일	1
6	李弘佐	1730년 9월~1732년 윤5월	1730년 9월 21일	1
7	宋堯輔	1732년 7월~1737년 4월	1732년 7월 28일	2
8	李梅臣	1737년 5월~1740년 2월	1737년 5월 30일	1
9	朴師漢	1740년 4월~1744년 12월	1740년 4월 11일	1

예안현감은 대부분 부임한 그달에 도산서원을 방문했으며, 1~2회 방문사실을 기록했다. 그런데 朴聖輯은 8회, 呂命周는 12회 기록했다. 박성집은 1721년 2월 부임하여 같은 달 15일에 알묘했으며, 5월 9일 두 번째 방문했다. 1722년 3월 19일에는 하루에 두 번 방문했는데, 두 번째는 영해의 여러 친척과 함께 방문했다. 이때 함양인 朴乃貞도 관직을 그만두고 영해로 돌아가는 길에 도산서원을 방문하여 친척들과 함께 했다. 11월 23일에는 아버지·동생·사촌과 함께 방문했다. 1723년 3월 5일과 5월 5일에도 영해의 친척 2명과 방문했고, 1723년 6월에는 안동부사 李仁復(1683~1730)과 함께 방문했다. 박성집은 첫 번째 사당 참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족 및 친척과 함께 방문했으며, 친척들도 박성집이 예안 수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욱 쉽게 도산서원을 방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명주는 1726년 10월에 부임하여 같은 달 10월 30일 처음으로 도산서원을 방문했다. 이후 도산서원을 방문할 때마다 방문 날짜와 횟수를 『심원록』에 기재했으며, 두번째 방문까지는 ‘後學’이라고 표기했다. 1728년 1월 6일 10번째 방문에서는 그 이전에 서원을 방문했지만 『심원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적었다. “지난 8월 24일 서원의 향사를 지냈으며, 9월 15일에는 社講하고 飲禮를 행했으나 기재하지 않아 추기한다.”는 내용이다. 1728년 1월 21일 11번째 방문했으며, 3월 6일 12번째 기재할 때 ‘十五講’이라고 했다. 여명주는 18개월 동안 예안현감으로 근무하면서 거의 매달 도산서원을 방문했다.

### 3. 안동부사 및 기타 관직 역임자의 방문

예안 현감은 부임한 이후 반드시 도산서원을 방문했다. 그럼 인근 고을의 수령은 어떠했을까? 먼저, 안동부사부터 살펴보겠다. 도산서원이 예안에 위치하지만 안동부사는 도산서원을 특별하게 생각했다. 안동이 영남 사족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도산서원이 영남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안동부사의 도산서원 방문 여부는 <표 11>에서 알 수 있다.

&lt;표 11&gt; 1720~1745년 안동부사의 도산서원 방문 현황

성명	재임기간	방문일자	성명	재임기간	방문일자
權以鎭	1718~1720		李重協	1729~1731	
金鎭玉	1721~1722	1721년 5월 9일	李德孚	1731~1733	1731년 9월
李仁復	1722~1723	1722년 9월 17일, 1723년 6월	金濼	1733~1735	1733년 8월 16일
朴師洙	1723~1725	1724년 4월 4일	黃晟	1735~1737	1736년 8월
鄭宇柱	1725~1725		魚有龍	1737~1738	1738년 6월
李鳳翼	1726~1726		李喆輔	1738~1739	1739년 4월 8일
趙榮世	1726~1727	1727년 2월 5일	李重庚	1739~1742	1742년 5월 28일
李廷燭	1727~1728		李普赫	1742~1743	1743년
朴師洙	1728~1728		沈星鎭	1743~1744	1744년 3월 26일
尹陽來	1728~1728	1726년 11월 4일	李命坤	1744~1744	
柳綏	1728~1729	1723년 7월 14일	李昌諠	1744~1747	

안동부사 22명 가운데 14명이 도산서원을 방문하여 예안현감처럼 의례적인 방문은 하지 않았다. 1722~1723년 안동부사를 역임한 이인복은 도산서원을 5번 방문했으며, 안동부사를 역임할 때는 2번 방문했다. 9월 17일에는 부친 李存道를 모시고 도산서원을 방문했다. 이때 이인복은 1699(己卯)년 12월, 1700(庚辰)년 10월, 1722(壬寅)년 4월에 도산서원을 방문했던 사실을 『심원록』에 기재했다. 그리고 5대조 이원익이 도체찰사로 있을 당시 내방했던 기록을 찾아보았다.<sup>35)</sup>

35) “歲己卯季冬, 自宣城來謁. 庚辰孟冬又來謁. 壬寅孟夏念日, 又以花山倅來謁. 敬園尋院錄第一卷, 萬曆丙申, 先祖梧里公, 以都體察史來謁. 蓋昔兩年未及謁見者, 幼少時人來, 草草如是, 聊以志其不敏爾.”(『尋院錄(壬寅十一月至丁未七月)』)

박사수는 1723년과 1728년 두 차례에 걸쳐 안동부사에 부임했으며, 첫 번째 부임했을 때 도산서원을 방문했다. 그는 탕평당이면서 안동의 노론 서원인 학동서원 건립시 서원을 훼손했던 영남인사를 ‘亂民’으로 규정하는 등 학동서원 건립 시비에서 노론 쪽 주장에 가까운 입장을 표명했다. 李德孚·尹陽來·魚有龍 등은 노론에 속했지만 도산서원을 방문했으며, 이덕부는 『심원록』에 ‘後學’이라고 표기했다.

그 밖의 지방관 혹은 관직 역임자 가운데 경차관·督運御史·察訪 등도 도산서원을 방문했으며, 봉화·선산·순흥·신령·영양·영주·예천·진보·청송·하양·함창 등의 경상좌도 수령의 도산서원 방문도 이어졌다.

이처럼 경상감사, 예안현감, 안동부사 등의 지방관은 도산서원 방문에 적극적이었다. 지방관의 도산서원 방문은 노론과 소론의 구분이 없었으며, 노론 가운데도 ‘평생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후학’ 등으로 표기하는 등 이황에 대한 존경심과 학문적인 계승 입장을 나타냈다. 물론 영남 남인을 정치에서 배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와 더불어 도산서원이 영남 남인의 정치적 중심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문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1720년 12월 20일부터 1745년 1월 21일까지 도산서원 『심원록』에 기재된 4,935명을 대상으로 방문인원과 목적, 방문객의 거주지와 성씨, 지방관의 서원 방문 현황 등을 분석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인원과 목적을 살펴보았다. 도산서원에는 한해 평균 200여 명이 『심원록』에 방문사실을 기재했지만, 실제 방문객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1728년(352명)과 1733년(639명)에는 도산서원 방문객이 이례적으로 많았다. 영남안집어사에 차출된 박문수가 1728년 2월 영남지역을 순행하면서 2월 11일 도산서원을 방문했을 때 경상좌도에서 152명이 모였다. 1733년 12월 17일 영조가 이황을 치제할 때도 도산서원 방문객 가운데 453명이 『심원록』에 방문 사실을 기재했다. 박문수의 순행과 영조의 치제는 중앙의 영남 남인에 대한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갑술환국 이후 중앙정치에서 배제된 영남 남인의 고조된 불만과 1728년 소론과 과격 남인이 중심이 된 무신난을 겪으면서 영조는 영남지역의 위무와 조용 등에 더욱 역점을 두었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 가운데 일부를 도산서원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다.

방문객은 이황을 흠모하며 그의 학문과 도학을 계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산서원을 방문했다. 과거에 급제하거나 도산서원 근처에 오고 갈 때도 도산서원에 참배했다. 『심원록』을 통해 향사·거재·출판·완락재의 관리 등 서원 운영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문객의 거주지와 성씨를 분석했다. 방문객은 예안·안동 등 도산서원 인근 지역을 비롯하여 멀리서 함경도와 제주까지 이르러, 전국에서 방문이 이루어졌다. 모두 236개 성씨가 8개 도 63개 지역에서 방문했다. 그 가운데 안동 권씨, 진성 이씨, 의성 김씨, 전주 이씨, 광산 김씨, 영천 이씨, 봉화 금씨, 청주 정씨, 전주 류씨 등의 순으로 방문이 이어졌으며, 지역별로는 예안을 제외하고는 안동·영주·순흥·영해·봉화·예천·영양 순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관의 방문 현황을 확인했다. 경상감사 22명 가운데 11명이 방문했으며, 예안현감 9명은 부임한 그달에 모두 도산서원을 참

배했다. 안동을 비롯한 인근 고을 수령의 방문도 잦았는데, 도산서원 방문은 지방관의 당색과 무관했다. 노론 가운데도 ‘평생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후학’ 등으로 표기하는 등 이황에 대한 존경심과 학문적 계승 입장을 나타냈다. 물론 영남 남인을 정치에서 배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와 더불어 도산서원이 영남 남인의 정치적 중심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문한 측면도 있다.

18세기 전반의 『심원록』을 통해 도산서원 방문의 성격은 중층적임을 알 수 있다. 이황의 학문과 도학을 숭상하여 사당을 참배하러 오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앙의 대영남 정책에 대응하여 영남 사족의 결집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으며, 도산서원 운영과 관련된 방문도 있다. 특히 도산서원 운영은 진성 이씨, 광산 김씨, 봉화 금씨, 영천 이씨를 비롯한 예안의 사족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경상좌도의 ‘갈암문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시기별 방문객의 현황과 이를 통한 도산서원 위상의 변화에 대한 검토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 놓겠다.

##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http://sillok.history.go.kr>)

『承政院日記』(<http://sjw.history.go.kr>)

『江左集』(權萬)

『密菴集』(李栽)

『屏谷集』(權渠)

『星湖全集』(李瀾)

『霽山年譜』(金聖鐸)

『淸臺集』(權相一)

『希菴集』(蔡彭胤)

『淸臺日記(下)』(權相一, 국사편찬위원회)

『尋院錄』(8책, 한국국학진흥원)

『光山金氏禮安派譜』(1977)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 研究』, 집문당, 1997.

정만조 외,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金命子,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金鶴洙,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8.

金炯秀, 「1738년(영조 14년) 安東 鶴東서원의 치폐와 지방관의 역할 - 『法城日記』  
를 중심으로 -」 『嶺南學』17, 2010.

서홍석, 「충현서원 『심원록(尋院錄)』 분석」 『考古와 民俗』13, 2010.

李根浩, 「英祖代 戊申亂 이후 慶尙監司의 收拾策」 『영남학』17, 2010.

Abstract

Visit to Dosan Seowon(陶山書院) and its meaning around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through 『Shimwonrok(尋院錄)』

Kim, Myung-Ja

This thesis analyzed visit number and purpose, visitors' residence and family name, the status of local government officers' visit, etc., surveying 4,935 who were registered in Dosan Seowon 『Shimwonrok』 from December 20, 1720 to January 21, 1745. The content thereof wa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visit number and visit purpose were investigated. In Dosan Seowon, annually around 200 people on average registered their visit on 『Shimwonrok』. However, in 1728(352) and 1733(639), Dosan Seowon visitors were extraordinarily many. On February 11, 1728, Park, moon-soo, Yeongnam royal secret inspector, visited Dosan Seowon while his royal tour around Yeongnam region, then 152 registered on 『Shimwonrok』, and when Yeongjo offered a rite for Teogyee Lee Hwang on December 17, 1733, 454 registered there. Park, moon-soo's royal tour and Yeongjo's rite offer were parts of Yeongnam region's native tribe consolation, and this was intended to realize through Dosan Seowon. Among the visitors, in most cases, they visited there since they admired Teogyee, besides, when they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when they went around Dosan Seowon, and management of Seowon, e.g. Hyangsa·Geoje(居齋)·publication·Wanrakje management, etc., they visited there.

Second, visitors' residence and their family name were analyzed. Total 236 family names from 66 regions of 8 provinces(道) visited there.

Among them, in order of Andon Gwon, Jinseon Lee, Uisung Kim, Jeonju Lee, Gwangsan Kim, Youngcheon Lee, Bonghwa Kum, Cheongju Jeong, Jeonju Ryu, etc. visited there, by regional groups, in order of Andong · Youngju · Sunhong · Younghae · Yecheon · Bonghwa · Youngyang, excluding Ye-an. People from Gyeongsang-jwa-do and Gal-am literary men also participated there.

Lastly, local government officers' visit status was also confirmed. 11 among 22 Gyeongsang auditors visited there, and all of 9 Ye-an governors visited Dosan Seowon in the month when they were newly appointed. Neighboring districts' leaders besides Andong also often visited there, however Dosan Seowon visit was unrelated to local government officers' partisan coloring. Among Noron, they wrote 'I've admired him all through my life', 'Junior scholar', etc., expressing respect for Lee Hwang and their position of study succession. Of course, local government officers' Dosan Seowon visit was due to the status of Dosan Seowon as the base of Youngnam Namin along with a realistic reason that Youngnam Namin could not be excluded from Politics.

Key Word

Dosan Seowon(陶山書院), 『Shimwonrok(尋院錄)』, Seowon visit, Youngnam Namin, Ye-an

- 논문투고일 : 2013.7.15. 심사완료일 : 2013.7.30. 게재결정일 : 2013.7.30.